

그 사람 지금은

(36) 안준前 광주시교육감 <하>

■ 전라도 역사이야기

- 화순 동복호

“교단선진화 모델 본 의원들 2천억 즉석 지원”

“1994년 실시된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선거는 7명의 교육 위원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당시 출마자는 당시 현역 교육감 인 자를 비롯해 안준일 1대 광주시 교육감, 박정주 당시 교육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위원이자 제 고등 학교 은사인 박종철 전남대 교수의 출마 제의를 받고 출마했 는데 선거를 한달 앞두고 박 교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래서 이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6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제가 당 선했습니다. 박정주 위원장까지 출마를 접고 저를 지지해준 덕분이었지요”

안준(73) 전(前)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은 1991년부터 8년 간 두 번이나 교육감을 지냈다.

당시 임명제 하의 교육감은 학무국장이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1991년 안준 당시 광주시교육청 학무국장이 제2대 교육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는 1995년 초대 민선인 제3대 교육감이 된 것 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감을 한번 하면 되지 두번 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 저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 다. 때문에 주변에서 그 사업을 완 성시켜야 한다며 출마를 권했지요”

안 전(前)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교단선진화 사 업은 민선 교육감 당선에도 큰 힘이 됐다.

“당시 학교에서는 10~20년 된 흑관을 그대로 쓰고 있었 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일상생활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도 교 단에서는 과거의 교수방법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혁



1996년 9월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원(현 중앙도서관)에 마련된 교단선진화 교실을 방문한 안 준(오른쪽에서 두번째) 당시 교육감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용하지 못했다. 도둑맞을까봐 컴퓨터는 창고에 들어갔을 정도였다.

“사실 당시 전국적으로는 교단선진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의 효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 전 교육감은 1999년 두 번째 민선교육감을 포기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문정수 민정수석과 친한 사이였는데 문 수석이 저에게 ‘투서가 자주 들어오지만 자기 손을 찢어버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교육감 이후 죽호학원 이사장 7년 계속된 교육현장의 생활 행복할 뿐”

조금 미진하지만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안 전 교육감은 2년여 동안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상무소각장 조정위원장 등을 하며 소일하던 중 2001년 죽호학원 이사장이 됐다.

“2001년 정월 아침 6시에 고교 동창인 박정구 당시 금호그룹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답을 듣지도 않고 끊더군요. 그리고 3월1일 당시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3일에 이사장 이·취임식을 할테니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지요”

안 전 교육감은 이후 7년 동안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지요. 교육감을 그만두고도 7년째 놀지 않고 매일 나와서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학생을 만나니 교육자로서 이보다 행복할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봉사할 것입니다”

안 전 교육감은 26세 때 박영신(70) 여사와 결혼, 슬하에 4남1녀를 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약력

- ▲1933년 보성군 봉래면 출생
▲광주교, 광주사범학교, 전남대 법대 졸업
▲광주시교육청 학무국장
▲2, 3대 광주시교육감
▲죽호학원 이사장

하고 잘 된 것은 칭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당시 서상록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에서 내놓은 만한 것이 뭐냐’고 물었고 ‘교단선진화 사업을 수년째 하고 있으며 그 모형을 교육연구원에 갖춰놨으니 국감 전에 한번 들 러봐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이른날 오전 교단선진화 모형 교실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점심을 먹은 뒤에는 일선 학교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간 곳이 주월초교였다.

“오후 1시부터 국감이 시작돼야 하는데 3시가 다 돼서야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 돌아왔어요. 이후 30분 동안 칭찬 일 변도의 국감이 진행됐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음해 2 천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16개 시도에 내렸어요. 광주를 모델 로 한 교단선진화 사업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금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은 이를 적절히 할

“96년 교내 전산화 모델 갖춰

국감 온 국회의원들 칭찬 일색”

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저는 당시 교단선진 화 사업을 모든 것을 걸고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교단선진화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말에도 힘이 넘쳐났다.

“각종 교육기자를 바꿨으며 교단에 컴퓨터를 들여오고 전산실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학교에 정보망도 깔았습니 다. 안병영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원이 많은 힘이 됐지 요”

안 전 교육감은 1996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을 설득, 전 국 학교의 교단선진화를 위해 2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 을 기억했다.

“원래 지방에서 벌어지는 국정감사는 인사나 교육행정에 불만 있는 인사들의 투서와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교육비 리를 주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1996년 10월 광주시교육청 국감을 위해 전남 광주에 온 국 회의원들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술 한잔 마시고 ‘잘못된 부 분은 사법당국이 이미 조치하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은 국감 에서 일선 학교에 가서 직접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

김삿갓 방랑생활도 멈추게 한 적벽 30리 비경 물 속에 잠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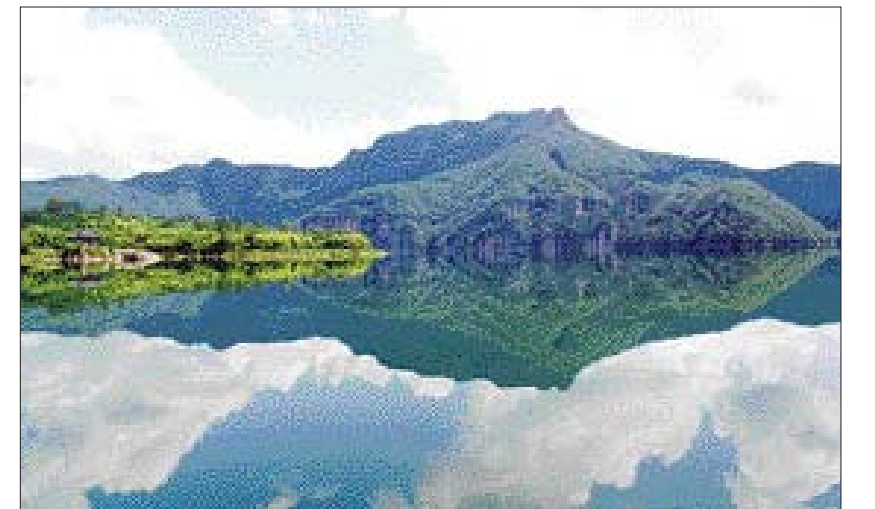
1970년대 광주시는 인구 50만이 넘어서서 동복수원지를 마련했다. 영산강 유역의 도시가 섬진강에서 한혈 받은 셈이다. 화순 동복면 연월리와 이서면 서리 사이 협곡에 댐이 축조됐다. 이 때문에 굽이돌면서 멋진 경치를 자아냈던 적벽강 30리는 호수로 변했다.

동복댐은 1차(1968~1970년)공사 때 만수능력 360만톤 규모였다가 1981년 2차 공사로 670만톤으로 늘었다. 1984년 3차 확장 때 댐 높이가 19.5m에서 44.7m로 높아져, 만수능력 9,200만톤, 1일 취수량 32만톤, 수몰면적 6.6㎢에 달했다.

이서면 서리, 월산리(월평·장월), 보산리(보암·난산), 장학리(장항·학당), 창랑리(창랑·물결), 도석리(석림·석보·전도), 북면 와촌·다곡리 일부가 물속에 잠겨 800 세대 가 떠났다. 도석리 444-2번지에 있던 이서면사무소도 아사리 태평동 652-1 번지로 옮겼다.

퇴적암 계층 절관암벽의 감입(嵌入)곡류 구간은 비경이었다. 1519년 기묘사화 후 동복에 유배 중이던 최산수가 중국 소동파가 선유했던 적벽에 버금간다 하여 ‘적벽(赤壁)’이라 명명했다. 노루목(嶺頭·장항)을 비롯하여 물결·보산·창랑적벽 7km, 389,017㎡가 1982년 전남기념물 제 60호로 지정됐다.

정암수(1534~1594)가 지은 창랑정(滄浪亭)과 송정순이 건립한 물염정(勿染亭)을 비롯하여 정지준이 세운 망미정(望美亭)과 강산대, 박재만의 만성정, 이연휴의 독락당, 송석정, 적벽정, 환학정, 백학정, 고소대, 탁영정도 있었다. 김삿갓(변연)은



동복호에서 바라본 웅성산과 노루목적벽일대.

이곳 경계에 방랑을 멈추고, 1863년 생을 마쳤다.

석보에는 ‘방석원(方席院)’이란 원집이 있어 김손의 율려 역할을 했고, 시장과 사창(社倉)도 위치했다. 들모실(野沙) 193번지는 규남 하백원(1781~1844)의 태생지다. 규남은 동국지도와 만국전도, 자승차(양수기), 자명종을 발명했다. 석과 나경적의 영향이 컸다.

2003년 말 웅성산(靈城山·573m) 자락 노루목적벽의 서편 장항리 80번지에 망향(望鄕)동산이 조성됐다. 정자와 함께 탐·단·마을유래비를 세우고, 해마다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김삿갓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가졌다.

모처에서 만나 답사를 동행했던 학단마을 출신 정규철 선생님이 펴낸 산문집을 펼친다. 고경명의 ‘적벽의 새벽 안개(赤壁晨靄·적벽신하)’를 읊어본다. 둘러 있는 붉은 층벽 볼수록 아름다운데(赤城明滅露凝華·적성명멸로응화) 아침 햇살에 비치는 안개 더욱 좋구나(朝日微升疊綺綺·조일미승참기하). 푸른빛 은 봉우리 비단처럼 붉은데(千點碧峯紅錦裏·천점벽봉홍금리) 어떤 도인 하염없이 지팡이 짚고 섰네(道人扶杖岸烏紗·도인부장안오사).

/김경수사(해동문화진흥원장)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엔터시네마 총장로 57가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무등극장 총장로 1가

제일시네마 총장로 37가